

환경교과서의 당위적 표현 분석을 통한 환경 가치 교육 방안에 대한 고찰

조 성 화 · 최 돈 형[†]

한국교원대학교

A Study on Ways to Environmental Values Education from Appropriateness Expression Analysis of Sentences on Environmental Education Textbooks

Seong-Hoa Cho · Don-Hyung Cho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In this study, we discuss ways to environmental values education from sentences on environmental education textbooks. Values education is very important territory in environmental education. But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has some different idea about how to teach that. One way is to teach directly. The other way is to teach in a roundabout way. These days many researches said that roundabout way is be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good ways to values educa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So we analyzed sentences on four environmental education textbooks of middle school. The analysis is limited body of textbooks. And we found immediate appropriateness expression for values educat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420 immediate expression in textbooks. That is 11% of whole expressions. And 6 big Units of textbooks have not difference about that expression. Most last sentences of class are immediate expressions. So authors of textbook will have mind about good values education method. One method is to use many interrogative sentences. Interrogative sentences help that student have values of themselves.

Key words : environmental values education, appropriateness expression analysis, environmental education textbook, environmental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환경교육 특히 학교 환경교육에서 가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논쟁은 학교

환경교육이 시작됨과 동시에 등장하여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논쟁은 학교 환경교육에서 가치 교육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느냐가 논쟁의 한 축이고, 만약 가치 교육을 해야 한다면 특정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지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치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dhchoi@knue.ac.kr, Tel : +82-43-230-3757

를 지향하되 간접적으로 지향해야 하는가가 또 다른 논쟁의 축이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와 논의들을 보면, 환경교육에서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가치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환경교육에서는 과학적인 지식과 윤리적 가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김정호, 1997). 또한 최근에는 학교 환경교육에서는 가치 교육을 해야 하고, 어찌 보면 가치 교육이 학교 환경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남상준, 2010). 이는 학교 환경교육이 환경친화적인 가치를 가진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받아들이고, 이 지향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와 관련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되, 이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교육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직접적으로 생각과 행동, 태도를 전달하는 형식이 아닌 다양한 가치를 공정하게 교육하고 이 중에서 학습자에게 선택을 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옹호(advocacy)와 교육(education)의 논쟁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Mappin & Johnson, 2005),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제로 환경쟁점 수업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어떠한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가와 관련된 연구(이재영, 2004)가 발표된 바 있고, 환경가치 교육을 간접전달 방법인 연찬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김태경, 1999). 옹호와 교육 논쟁의 전반적인 귀결점이나 일반적인 교육학적 맥락, 환경교육학계에서의 연구에서 보았을 때, 교육 상황에서 특정한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학습자에게 그대로 갖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Fein, 1993; Kelly, 2001)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가 본래 추구하는 목적에 따른 바람직한 가

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이 해당 가치를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교육이 가치를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이는 이미 교육이 아닌 교화나 교조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교육계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재영(2004)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환경교사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교사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교과도 여타의 다른 교과들과 같이 학교에서 교육되는 하나의 교과라면 다른 교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들에는 동의하고, 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학교 환경교육이 특정 가치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의미는 이론적인 학자들의 논의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가치 교육 방법을 알아보는 방법 중 한 가지가 환경교과서의 내용 표현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가치와 태도 행동을 전달하려는 표현을 찾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환경교과서 내용 표현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환경교과서는 어떠한 환경교사가 학교 환경교육을 하더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교재이기 때문이다. 즉, 이 교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치 교육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학교 환경교육에서 가치 교육이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환경교육을 하느냐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교육에 대한 본인의 신념에 의해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인 교과서 수준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가치 교육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신의 교육철학과 신념에 의해 옳다고 믿는 가치 교육 방향으로 가치 교육을 하는 것과 교과서가 일정한 신념과 방향으로 이미 진술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가치지향적인 접근보다는 가치 중립적(value-free)인 혹은 가치 공평(value-fair)한 접근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Fien, 1993; Jickling, 2005) 학교 환경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교재인 환경 교과서가 가치 교육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위와 같은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환경교과서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학교 환경교육에서 가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환경 가치 교육이 교과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과서에서 가치 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둘째, 학교 환경교육에서의 바람직한 가치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중학교 환경교과서 4종의 본문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용 중 “당위적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교과서 분석 범위는 교과서의 활동이나 단원 정리 등과 같은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였고, 분석 단위는 단문이나 복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장 단위로 하였다. 단문과 복문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복문을 구분할 경우 구분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구분한 문장 중 당위적 표현이 어떤 문장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분석 방법은 문장의 내용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지향하는 당위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빈도를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 ~하도록 한다.” 등과 같은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학습자에게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주입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당위적인 표현으로 구분된 문장의 예는 표 1과 같다.

본문의 문장들 중에서는 위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 당위적인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장들은 객관적으로 구분해 내기가 힘들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본

표 1. 중학교 환경 교과서에 제시된 당위적인 표현의 사례

교과서	당위적 표현 문장 사례
A	지역주민들은 환경조사 활동을 통해 공업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B	우리는 이러한 흙의 소중함을 깨닫고, 흙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C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의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D	우리는 제품과 도구를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소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논문에서는 당위적 표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당위적 표현은 표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현들로만 국한된 것이므로 실제 교과서에서 사용된 당위적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당위적 표현 문장의 분석은 대단원별 분석과 각 차시별 마지막 문장의 당위적 표현 여부 분석을 포함하였다. 각 차시별 마지막 문장의 당위적 표현 방법을 별도로 분석한 이유는 연구자가 여러 환경교과서들의 표현 방식을 보았을 때 경험적으로 차시의 마지막 표현에 이러한 당위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이 실제로 어느 정도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고, 차시의 마지막에 당위적 표현 문장이 등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위적인 표현의 문장을 선별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4종의 교과서를 두 번 반복 분석을 통해 문장을 찾고, 이를 동료 연구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당위적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선별하였다. 이때 검토에 참여한 동료 연구자는 환경교과서를 개발한 경력이 있고, 현재 환경교과서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별된 문장들은 각 교과서별, 대단원별, 중단원별로 정리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당위적 표현의 문장이 한 차시 수준의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 주로 분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의 기술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III. 연구 결과

1. 환경교과서의 가치 교육 방법

가. 환경교과서의 당위적 표현 결과

총 4종의 중학교 환경교과서를 분석하여 당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을 도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4종의 중학교 환경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문장은 총 3,811개였고, 그 중에서 당위적인 표현의 문장은 420개였다. 이는 환경교과서 문장의

표 2. 중학교 환경교과서에 제시된 당위적 표현 사례 분석 결과

교과서	전체 문장(수)	당위적 표현 문장(수)	비율 (%)
A	920	67	7.9
B	792	97	12.2
C	947	121	12.7
D	1,152	135	11.7
계	3,811	420	11.02

11% 정도가 “~하여야 한다.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등과 같은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의 직접적인 가치 지향적인 표현, 즉 당위적인 표현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 환경교육에서 가치를 지향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10개 문장 중 한 개의 문장이 당위적 표현이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 교육의 대표적인 교과라고 볼 수 있는 “도덕” 교과를 보더라도 도덕교육은 학생 스스로가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거나, 간접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박현진, 2007)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즉 직접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표현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가 A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 4단원의 “환경친화적인 삶의 방식” 영역을 환경교과서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총 143개의 본문 문장 중에서 당위적인 표현은 단 4개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환경교과에 비해서 가치와 태도, 행동을 교육해야 하는 요소가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도덕교과에서도 직접적인 가치 지향적 표현은 가능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른 교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항상 옳다

고 볼 수는 없지만, 박현진(2007)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치 교육과 관련한 역사가 긴 교과인 도덕교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치 교육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환경교육에서 가치 교육을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군다나 연구 방법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에서 당위적인 표현으로 구분되는 문장들은 직접적인 당위적 진술들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당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문장들 중 최소한의 숫자라고 할 수 있다.

4종의 중학교 환경교과서의 당위적 표현을 여섯 개의 대단원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학교 환경교과서 분석 결과를 6개의 대단원별로 정리해서 보면, 당위적 표현 문장이 1단원에 상대적으로 적고, 6단원에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단원별로 당위적 표현 결과를 정리해 본 목적은 당위적인 표현이 특정한 대단원에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때문이었다. 즉, 소위 내용학을 기반으로 하는 대단원 영역에서는 당위적인 표현이 많지 않고,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로 다루는 대단원 영역에서는 당위적인 표현이 많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본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용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단원인 4, 5단원에서도 당위적 표현 문장이 평균을 웃도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내용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학습자의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1단원은 오히려 당위적 표현 문장 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내용학을 기반으로 한 영역이나, 그렇지 않느냐가 당위적 표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차시별 종결 문장의 당위적 표현 분석 결과

중학교 환경교과서에서 각 차시가 끝나는 마지막 종결 문장이 당위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차시별 종결 문장이 당위적 표현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문장으로 끝나는지를 확인한 이유는 환경교과서 내에 존재하는 당위적인 표현이 차시 단위에서는 어디에 주로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연구자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가정은 각각의 차시 마지막에서 당위적 표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환경교과서에서 하나의 차시를 마무리할 때 당위적인 표현으로 가

표 4. 차시별 종결 문장에 나타난 당위적 표현 분석 결과

교과서	차시	당위적 표현 종결	비율(%)
A	32	7	21.8
B	31	22	71.0
C	35	19	54.2
D	31	10	32.2
계	129	58	44.9

표 3. 중학교 환경교과서 당위적 표현의 대단원별 분석 결과

대단원	대단원 주제	전체 문장(수)	당위적 문장(수)	비율(%)
I	환경과 나	646	50	7.7
II	환경의 변화와 지속 가능 발전	575	58	10.0
III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994	93	9.3
IV	자원과 에너지	526	66	12.5
V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620	76	12.2
VI	환경 보전의 실천	450	77	17.1
	계	3,811	420	11.02

치나 태도, 행동을 제시하며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연구자가 당초에 가정했던 것과 같이 총 129차시 중에서 58개 차시의 마지막 종결 문장이 당위적 표현이었다. 이는 총 차시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략 2개 차시중 1개 차시에서 마지막 종결 문장으로 당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문장 진술 형태가 객관적인 서술이거나 의문형의 서술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교과서들이 우연히 당위적인 표현으로 차시가 마무리 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의 내용이 당위적인 표현으로 마무리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자가 환경교과서가 두 차시 중 하나의 차시에서 당위적인 표현으로 마무리 되는 원인에 대해 교과서의 구조를 관찰해 본 결과, 다음 그림 1과 같은 환경교과서의 서술 기본 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환경교과서의 대부분의 차시는 위와 같은 단계로 서술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가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가 끝나는 차시의 마지막에 당위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학생들은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차시 내용을 학습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태도와 가치, 행동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위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에게 저자들이 특정 태도와 가치, 활동을 해

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과서 저자가 제시하는 가치와 태도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것이지만,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했을 때 이를 내면화 하고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최돈형, 2005; 최돈형 등, 2007)는 환경교육의 기본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학교 환경교육에서 바람직한 가치 교육 방안

지금까지 중학교 환경교과서의 당위적인 표현 분석을 중심으로 학교 환경교육의 가치 교육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표현들이 교과서의 진술 구조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환경교과서의 서술 방식은 가치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면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환경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교과서는 환경과 교육과정을 그 근본 뼈대로 해서 저자들에 의해 집필되게 된다. 이러한 교과서 집필의 일련 과정에서 저자들은 은연 중에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당위적 표현들을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표현하고 있다. 어쩌면 교과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많이 당위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 환경교육은 교육이라는 넓은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환경교육도 교육적인 기본 원칙들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자들에게 교육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환경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저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의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서술하려는 기존의 노력과 함께 학습자의 가치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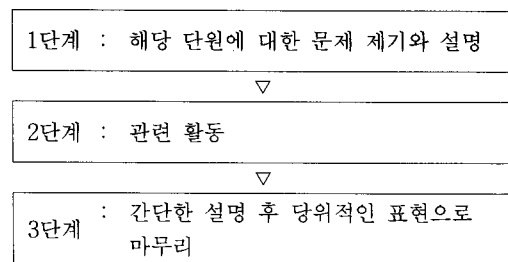


그림 1. 현행 환경교과서의 기본 서술 단계

문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교육과정을 보면 순수하게 내용학적 지식만을 다루고 가치와 태도 행동 부분을 다루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치와 태도, 행동 부분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집필하게 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단순히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환경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환경친화적인 태도와 가치, 행동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학생 스스로 그러한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남상준 등, 1999)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이다. 그 방법은 당연히 다양할 것이다. 그 중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치나 태도, 행동과 관련된 진술이 필요한 경우 문장 서술에 의문형 문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앞선 분석에서 제시하였던 도덕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가치나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의문형 문장이 다수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한 예는 다음과 같다.

“편리하지만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힘들지만 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

이와 같은 의문형 문장으로 해당 부분이나 차시를 종결하게 되면 학생들은 해당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활동 등을 종합하여 교육자가 기대하는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환경교과서에 그토록 많은 당위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특히 차시의 마지막에 이러한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제시한 본문의 내용들과 활동들로는 학생들이 바람직

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교육자라면, 또한 전문성을 갖춘 환경교과서 저자라면 학생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가치를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곳곳에 배치하고, 직접적인 가치 주입식 표현은 삼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환경교과서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학교 환경교육에서 가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바람직한 가치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중학교 환경교과서 전체 문장의 11% 정도가 당위적인 표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모든 대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다. 특히 각 차시의 마지막 문장의 45% 정도가 당위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환경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정형화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교육은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 영역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는 교육 영역이다. 특히 정의적인 영역은 학습자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을 다루는 영역이므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이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의 환경교과서는 이러한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후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전문가들이 가치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의 표현에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의식 전환과 가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열려 있는 질문 형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에서 가치 교육이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방법이 교과서 분석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 환경교육에서의 가치 교육 전부를 다루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다른 측면에서 학교 환경교육의 가치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이를 통한 추가 대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선보, 고미숙, 김경태, 김정수, 박찬석, 서주원, 손창균, 신창호, 이선희, 한석원 (2009). **중학교 도덕 1**, (주)미래엔 컬처그룹.
2. 김정호 (1997). 환경교육에서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가치의 관계, **환경교육**, **10(2)**, 51-62.
3. 김태경 (1999). 연찬방식을 통한 대안적 환경 가치 교육방안, **환경교육**, **12(1)**, 322-443.
4. 남상준 (2010). 환경교육의 교수·학습과 가치의 문제, **환경교사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자료집**.
5. 남상준, 김대성, 김두련, 이상복, 한세일 (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원미사.
6. 박국태, 박태운, 이훈정 (2009). **중학교 환경**, (주)지학사.
7. 박현진 (2007). 도덕교육의 당위성에 관한 한 해석, **윤리철학교육**, **7**, 157-173.
8. 윤순진, 이동엽, 윤석희, 이수중, 황유경 (2009). **중학교 환경**, (주)금성출판사.
9. 이재영 (2004). 환경 쟁점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에 관한 중등 환경 담당 교사의 인식 조사, **환경교육**, **17(2)**, 50-59.
10. 최경희, 강운선, 손연아, 신동희, 김강석, 김미진 (2009). **중학교 환경**, 두산동아.
11. 최돈형 (2005). **환경교육학입문**, 원미사.
12. 최돈형, 손연아, 이미옥, 이성희 (2007). **환경교육 교수 학습론**, 교육과학사.
13. 최돈형, 김기대, 김학성, 진옥화, 남윤희, 조성화 (2009). **중학교 환경**, (주)미래엔 컬처 그룹.
14. Fein, J. (1993). *Environmental Education: A Pathway to Sustainability*, Geelong, Australia: Deakin University Press.
15. Fien, J. (1993). *Education for the Environment: Critical Curriculum Theorising and Environmental Education*, Geelong: Deakin University Press.
16. Jickling, B. (2005). Education and advocacy: a troubling relationship. In E. A. Johnson & M. Mappin (Ed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dvocacy* (pp. 91-1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 Mappin, M. J. & Johnson, E. A. (2005). Changing perspectives of ecology and educa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In E. A. Johnson & M. Mappin (Ed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dvocacy* (pp. 1-27).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Kelly, T. E. (2001). Discussing controversial issues: Four perspectives on the teacher's role. In W. Hare, & J. P. Protelli (Eds.), *Philosophy of Education: Introductory Reading* (pp. 221-242). Canada: Detselig Enterprises Ltd..

2011년 9월 1일 접수
 2011년 9월 20일 심사완료
 2011년 9월 22일 게재확정